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여름 휴가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정읍시가 여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등 30여 곳이다.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따라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품목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 수산물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활참돔, 낙지, 가리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냉동고등어 등이다. 점검 항목은 △원산지 거짓(허위·혼동)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농업인안전
보험료' 80% 지원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생계현장인 논밭이 위협대로 바뀌고 있다. 정읍시는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뿐만 아니라 여름철 대표적 건강 위험인 열탈진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다.

가입 시 의료비 일부와 일정보상을 받을 수 있어 고온 속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나이(만 15세~87세, 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나 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80%를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성공 '맞손'

고창군-IH, 혁신지구사업 공동시행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과 IH가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사업사업의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특히 IH의 참여가 공식화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랜드마크 건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IH공사와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사업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송영환 IH공사 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IH의 참여는 까다로운 내부심



의 절차(후보지 경영투자심사(경투심), 주택경투심 등)를 모두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지역공공개발과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업성이 인정된 셈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터미널 복합건물과 공동주택을 고창군과 IH공사가 각

각 추진하면서 사업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고창군은 2동의 건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핫플레이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신(新) 터미널 복합건물의 조감도가 공개되고, 임시터미널 운영이 시작되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IH는 복합터미널 맞은편 공영주차장 부지에 임대아파트 21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급면적도 다량화(36㎡(16평), 46㎡(20평), 55㎡(23평), 84㎡(32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1일 군민과 함께하는 1만원의 가치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릴레이 캠페인 전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1일 군민과 함께하는 1만원의 가치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대학교 전 학년 전 학기 연간 2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약 2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온 부안군이 장학금 수혜자인 군민들이 후원의 주체가 되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단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캠페인의 시작을 알린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김차연 과장은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 성공을 위해 각 부서의 장과 군 직원들에게

지역인재를 키우는 장학사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기금 마련의 당위성을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부서장 홍보 릴레이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수막을 통한 대외 홍보 및 찾아가는 대면 홍보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장학사업 후원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을 통해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기부된 장학금은 반값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 비전 학자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 지원 등 부안 출신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강력 대응

고창군, 축산기관 긴급 간담회

고창군이 지난 21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움직임 관련, 축산기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축산부서, 고창부안축협, 고창군 한우협회 회장단 등 7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은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한 점을 들어 한국 역시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입 확대 시 광우병 발생 우려, 소비자 신뢰 저하, 그리고 국내 한우 산업의 경제적 피해 가능성 등을 주요 위험 요소로 분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미 자유무역(FTA) 협상에 따라 2026년부터 소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한국이 일본

보다 많이 수입하는 등 미국 소고기 생산자는 한국 시장에서 최대 이득국이다"며 "중앙정부가 2008년 초 '광우병 파동' 트라우마 및 소비와 안전 차원에서 관세 협상에 전략적 대응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7월 초 이례적인 폭염에 이어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사육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상 기온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논의됐다.

한우협회와 축협 관계자는 "앞으로 폭염의 장기화, 게릴라성 폭우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화를 위한 가축사육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방안 추진에 동감한다"라고 말했다.

염경선 고창군 축산과장은 "폭염, 폭우 대비 축산 농가 지원책 마련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재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어르신 · 장애인 안전 우리가 지킨다'

정읍시, 폭염 대응 행정 빛나

정읍시가 기상특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시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9일 정읍의 낮 최고기온은 37.8℃를 기록하며 공식 관측 이래 하루 최고 기온 극값을 경신했다. 비가 내리며 잠시 주춤했던 무더위는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폭염 대비 취약 노인·장애인 보호대책'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활동 현장을 전면 점검했다.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활동처의 위



해 요소를 확인, 참여자 안전교육 이행 여부, 복장 상태, 기상특보 대응책 등을 점검, 사고 우려가 있는 현장에는 시가 직접 방문에 조치를 취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를 살폈고, 3,500여 명의 어르

신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생활지원사들이 주말에도 독거 어르신의 안전 확인을 이어가도록 권장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도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함께 응급처치, 폭염시 행동요령 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고, 특색 맞춘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 · 실습 중심 진로 활동 펼쳐

부안고등학교(교장 이인화)는 지난 14일부터 18까지(5일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년 특색에 맞춘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과 실습 중심의 진로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2~3학년은 '자율교육과정'으로, 1학년은 교과와 연계한 '학교 특색 활동'으로 구성되고, 전 교사가 3~4인 팀으로 '하준의 십장이 된다'를 비롯한 총 36개의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개설했다. 학생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원하는 수업을 선택



하고, 실험, 토론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참여한 학생(박승범, 2학년)은 "운동

과 심박수의 관계를 직접 측정하고, 약물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며 생명과학의 매력에 빠질 수 있었다"며 "이번 수업을 통해 진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18일에는 모교를 졸업한 대학생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총 18개 학과에 대한 설명회가 열려 학생들이 실제 대학 생활과 전공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됐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